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 결과보고

- ❖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 개최 후 이사회 개최결과 및 인천시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함

* 우리시에서는 인천시-GCF 간 행·재정협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지원

I 개 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
- 일 시 : 2015. 3. 23(월) ~ 5. 26(목)
 - (사전회의) 2015. 3. 23(월), (본회의) 2015. 3. 24(화) ~ 3. 26(목)
 - * CSO(Civilian Society Organizations, 민간사회그룹) 회의 : 2015. 3. 21(토) ~ 3. 23(월)
- 장 소 : G-Tower(보드룸, 옹저버룸), 송도컨벤시아 소회의실
- 주 최 : GCF 사무국(후원 :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 공식언어 : 영어
- 참 석 자 : 300여명(GCF 이사, 대리이사, Advisor, Observer 등)
- 주요일정

일시	3/21~23(토~월)	3/23(월)	3/24(화)	3/25(수)	3/26(목)
오전	(08:30~12:00) CSO회의	(08:30~12:30) Meeting for Committees and Panels	(08:30~13:00) Agenda 1~8	(08:30~13:00) Agenda 13	(08:30~13:00) Agenda 20~24
오찬			(13:00~14:00) 인천시 주재 환영오찬 (GCF14층, 뷔페)	(13:00~14:00) GCF제공	(13:00~14:00) GCF제공
오후	(13:00~18:00) CSO회의	(14:00~18:00) Constituency Meeting	(14:00~18:30) Agenda 9~12	(14:00~18:30) Agenda 14~19	(14:00~18:30) Agenda 25~31
기타 일정		(18:30~20:30) CCAP 주재 만찬 (Convensia)	(19:00~20:00) GCF주재환영 리셉션 (GCF14층, 뷔페)	(19:00~20:30) 기재부 주재 만찬(Holiday Inn, 정찬)	

- * 필수사항 합의를 위해 커뮤니티, 팀간 소그룹 집중토론 이후 본회의장에서 Agenda 논의
 - 커뮤니티, 팀간 소그룹 집중토론은 G타워 8층 국제회의실 이용
- * CCAP(Center for clean air policy, 본사:워싱턴D.C., 직원30명)

□ 회의 주요안건

- 제9차 GCF 이사회(3.24, 송도)에서 금년 사업개시를 위해 GCF 사업을 수행할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사업모델을 보완
- ☞ 선진·개도국간 상당한 견해차가 지속되어 예정된 안건의 1/2만 논의
 - * 10차 이사회 송도개최(7.6~7.9), 11차 이사회 장소미정(10.27~10.29)

Ⅱ 이사회 주요결과

□ 제9차 GCF 이사회 주요 결정사항

- (이행기구) 지역, 성격 등을 고려해 7개 이행기구*를 선정하고 이행 기구와의 법적 계약 방식도 인증하여 사업개시 절차를 마련

- * ① 국제기구(ADB, UNDP, KfW)
- ② 지역기구(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 ③ 국내기구(세네갈 개발 기관, 페루 환경보호기금)
- ④ 민간기구(Acumen Fund)

(사업모델) 벤치마크 등 투자기준을 설정하고 금융수단을 구체화

- (벤치마크) 사업의 예측가능성, 기금 목적과의 부합을 위해 선진국은 벤치마크 설정을 요청했으나, 개도국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반발
 - ⇒ 최소 벤치마크는 국가 상황에 따라 적용하되, 특히 소규모 도서국 등 기후변화 취약국에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타협

- (금융수단) 공여(grant)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활용하되 민간·공공의 상환 조건을 차별화
- (우선사업) 사무국은 우선 사업분야(신재생에너지, 도시개발 등) 및 지역(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을 제안 →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 반발로 기존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

3 (능력배양) 개도국들은 능력배양, 재원에 대한 개도국 기관의 직접 접근(Direct Access)이 더디게 진행되고 개도국 기관 참여가 미흡함을 우려

* 한정된 논의 시간으로 10차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재원조성) 사무국은 성공적인 사업개시를 위해 초기조성금액인 102억불에 대한 공여협정 체결을 촉구(현재까지 협정 체결액 1.04억불)

◇ 금년 10월 GCF 사업 개시를 위해 필수적인 이행기구 인증과 투자기준 등이 채택되어 사업개시에 긍정적 전망

- 본격적인 GCF 사업개시를 앞두고 국내 기관(수은·산은)의 이행기구 인증을 독려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모델 개발 추진

III 세부 결정사항

□ 제9차 GCF 이사회 세부 결정사항

Work Plan for 2015

- 현재 계획이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금년 10월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별 논의 아젠다를 재조정

* 이사회간 Between meeting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는 내년에 논의하기로 합의

■ 사업모델 구체화(Business Model Crystallization)

① 이행기구 인증(Accreditation)

- GCF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 인증

기구 성격	이행 기구
International	-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 개발은행)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개발계획)
	-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독일부흥은행)
Regional	- SPREP(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
National	- CSE(Centre de Suivi Ecologique : 세네갈 개발 기관)
	- PROFONANPE(Peruvian Trust Fund for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 페루 환경보호기금)
Private Sector	- Acumen Fund(美 뉴욕 소재 Global Venture Fund)

- 인증위원회가 10차 이사회에서 국가·지역기구가 국가지정기구(NDA)와 연계하여 직접접근(Direct Access)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를 요청
- 인증패널(Accreditation Panel)에 국가·지역기구에 적용 가능한 Fast Track 접근방법을 요청
- 향후 이행기구 인증에 지역별 균형 및 개도국 기관에 대한 배려 요청

② 이행기구와의 법적 계약(Legal and Formal Arrangement)

- 기금과 이행기구가 포괄적 이행계약(AMA*)과 프로젝트 확인서 체결

* Accreditation Master Agreement : 계약조건, 시범사업준비, 이해상충 해결 등

【특권면제(P&I) 양자 체결 국가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자는 안(案)은 다양한 국가상황 고려 및 조속한 사업승인에 저해 된다는 이유로 삭제(中, 남아공 등)】

- 사무총장이 기금을 대표하여 이행기구와 협상 및 계약체결 수행

③ 기금에 기대되는 역할 및 영향(Expected Role and Impact)

- 기금의 사업은 결과관리프레임워크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
- 사무국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가 20억 불 초과시(사업 개시 후 2년 內) 적합한 정책을 추가 제안할 것을 요청

④ 투자프레임워크 : 세부기준 및 방법론

(Sub-criteria and Methodology)

- 투자 세부기준 확정
(Activity-specific sub-criteria, Indicative assessment factor)
- 기준별 최소 벤치마크를 도입하되,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에 유연하게 적용
- 기준을 어느정도 규모(scale)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 선정

⑤ 독립기술패널(Independent Technical Advisory Panel)

- 주로 중·대 규모(1백만불 이상)의 사업제안 검토에 참여
- 6명의 전문가로 구성(선진·개도국 동수)되며 독립성, 투명성, 신속한 출범(이사회 직후)을 보장 받음

⑥ 금융조건, 민간재원 조성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PSF)

- 민간부문에 지급되는 공여만 상환되며 상환조건은 개별적으로 결정
- 공공·민간에 지급되는 차관 상환조건은 개별적으로 결정
 - * 공공부문 지급 차관의 양허성 수준에 따라 다른 상환조건을 설정하는 안(案)은 연기
- 제10차 이사회에서 민간자문그룹(PSAC)이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고 제11차 이사회에서 중소기업 프로그램 채택을 요청

⑦ 위험관리, 젠더(Risk management, Gender)

- 기금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에 착수
- GCF 사업제안서 검토·이행, 자원 배분, 교육 등에 Gender를 고려하되 국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

■ 3 이사회 운영(Board Operation)

① 이사회 운영(이사 임기, 윤리 및 이해상충 정책 등)

- 이사 임기는 3년('15. 8.23)이나 후임자 확정 전(연말)까지 이사 업무 가능
- 이사·대리이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및 책임을 규정하고 정책 미준수시 처리 방안, 이해상충 사전 방지, 정보공개 방안 등 확정

IV

세부일정

2015. 3. 24(화)		
08:30~13:00	전체회의	1.개회
		2.안건 및 작업구조 채택
		3.9차 이사회 보고서 채택
		4.공동의장 활동 보고
		5.사무국 활동 보고
		6.위원회 및 패널 보고
		7.인증기구 법적 준비 및 공적 준비
		8.인증 제안서 심의
13:00~14:00	오찬	* 인천시장 주재 오찬제공
14:00~19:00	전체회의	9.직접 접근(Direct access) 강화를 위한 추가방식
		10.녹색기후기금의 예상 역할 및 영향 분석
		11.내부투자 프레임워크 및 추가 개발
		12.기금의 금융수단(Instruments) 금융 조건
19:00~20:00	만찬	* GCF 사무총장주재 만찬
2014. 3. 25(수)		
08:00~13:00	전체회의	13.기술자문패널(Technical advisory panel) TOR
13:00~14:00	오찬	* GCF 사무국 제공 오찬
14:00~21:00	전체회의	14.운영 매뉴얼 및 평가(Appraisal) 툴킷(Toolkit)
		15.젠더방침 및 실천 계획
		16.민간부문기구(PSF) : 자원 조성 규모화를 위한 잠재적 접근방식
21:20~22:20	만찬	* 기재부 차관주재 만찬제공
22:20~02:30	전체회의	17.민간부문기구(PSF) : 중소기업 등 지역(Local) 기구와의 작업
		18.초기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 리스크 성향정의 및 결정방법론 조사

2015. 3. 26(목)		
08:30~13:00	전체회의	19.2015 작업 계획
		20.회의간 의사결정 방법론
		21.합의부재시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22.윤리방침 및 이사회를 위한 이해상충 방침
		23.예산 및 회계시스템 행정 지침
		24.내부통제 프레임워크 및 내부감사 기준 행정지침
13:00~14:00	오찬	* GCF 사무국 제공 오찬
14:00~04:30	전체회의	25.인사(HR) 행정 가이드라인 정보
		26.특권 및 면제 양자협약을 위한 템플릿
		27.이사회구성 초대 임기
		28.10차 이사회 날짜 및 장소
		29.기타
		30.9차 이사회 보고
		31.폐회



□ '15년 제9차 이사회 관련 인천시 지원 특이사항

○ 이사회 개최장소(Venue) 변경 요청

- 기 준 : 컨벤시아(프리미어볼룸, 소회의실)

- 변 경 : GCF사무국(GCF 사무국보드룸, 12층)

* 이사회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등 이사회 회의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기 이사회 장소로 재결정

○ 옵저버룸(Observer Room) 설치 등 지원 요청

- 옵저버룸 설치 지원 : GCF 사무국 13층

- 사 유 : 이사회 개최장소(Venue) 변경에 따른 회의 효율화 도모

○ 이사회 보안관련(Security) 경찰청 등 협조 요청

- 최근 벌어진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보완강화의 필요성 대두

· 관련기관 : GCF사무국, 경찰청, IFEZA

· 조치사항 : 경찰관파견 및 체크포인트설치 등 출입통제 강화

□ 지원내용

○ 인천시 시장주재 오찬 제공

- 인천시 시장주재 제공 오찬 1회

- 대상 : GCF 공동의장, 이사, 대리이사, GCF사무총장, 어드바이저
옵저버,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관련 공무원 등

○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임차에 따른 기본관리비 및 장비사용료 등 지원

- 행·재정협정 제1조제6항에 따라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무상 임차

- 회의장임차 기본관리비 및 장비사용료 등 지원

- 그룹별 집중토의를 위한 국제회의장 제공(국제회의실 8층)

○ 읍저버름 설치 등 지원

- 이사회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읍저버름 조성 지원

○ 이사회 보안관련 경찰관 파견 지원

- 미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인력 지원 요청 및 파견
- 1일 평균 100명지원(연 300명 파견 지원)

○ 기타 GCF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원

- 구급차 및 간호사 지원(2015. 3. 24(화) ~ 26(목))

* 읍저버 두통에 따른 타이레놀 제공(3. 25(수), 오전)

- GCF EMBLEM FLAG, 행사장 안내 및 진행인력, 사무용품 등
- GCF 로고기 게양, 현수막 게첩(G타워 1층 출입구)
- 주차공간확보(의전차량 현관 앞 및 지하주차장 주차면 확보)
- 등록데스크설치(책상, 의자등지원, 1층 대형머니터 앞)
- 국제회의장사용(국제회의장 8층 전체, 3.23~27 이사회전기간),
- 스피트게이트통과등 보안강화(행사장순찰강화, 보안요원12층상주근무)
- 저층용 엘리베이터(1~13층) 전용 사용(타기관 고층E/V사용유도)
- 현관 앞 호텔 셔틀버스 승·하차 협조 등
- 대형모니터 제9차 이사회 회의 행사안내(PPT송출)
- 화물엘리베이터(11호기) 사용

(절탁자, 의자, LED TV, 음향장비, 케이터링 식자재 등 운반)

기호일보

2015년 03월 24일 화요일 002면 종합

GCF 이사회, 오늘 31개 어젠다 다룬다

송도 G-타워서 3일간 협의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가 송도 G-타워에서 열린다.

23일 시에 따르면 가브리엘 끼한드리아와 헨릭 하보 GCF 공동의장을 포함해 이사와 대리이사 각 24명, 어드바이저 및 옵서버 300여 명이 참가하는 GCF 제9차 이사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사회에는 지난해 재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모델체계를 마련

한 이후 시행 반 년 만에 102억 달러를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이전 이사회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는 총 31개의 어젠다를 다루게 되는데, 이 중 결정사항이 20개, 정보공유 5개, 이외 진행에 필요한 어젠다 6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어젠다 중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이행기구와 중개기관 인증은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열리는 이번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GCF 사무국이 위치한 G-타워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해 회의장과 부대공간 구성, 보안운영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경인일보

2015년 03월 24일 화요일 002면 종합

GCF, 개발도상국 지원 본격화

<녹색기후기금>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사회 사업비 집행이행기구 선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GCF는 24일부터 26일까지 송도 국제도시 G-타워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공동 의장인 가브리엘 키한드리아(Gabriel Quijandria) 페루 환경부 차관과 헨릭 하보(Henrik Harboe) 노르웨이 외교부 개발정책국장을 비롯 42개국에서 이사와 대리이사 48명이 참석한다. 각국의 어드바이

저(분야별 전문가)와 옵서버(NGO 등 참관인)도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은 개도국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와 중개기관(Intermediaries)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은 각국에서 GCF 기금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행 관리, 사업완료 보고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이 선정되면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신청을 받을 수 있다.

GCF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사실상 개도국 지원사업에 착수하게 되

는 것이다. GCF는 제9차 이사회 이후 사업 신청을 받고, 빠르면 올 6월 개최하는 제10차 이사회에서 첫 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2월 인천에서 출범한 GCF는 그동안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총 31개국으로부터 약 102억 달러(약 11조3천811억원)의 공여 약속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GCF가 지난 1년여 동안 기금을 모으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개도국 기후변화와 관련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GCF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 시장, GCF 제9차 이사회 환영 오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4일 송도 G타워에서 가브리엘 끼한드리야, 헨릭 하보 GCF 공동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경기일보

2015년 03월 25일 수요일
103면 인천

GCF 9차 이사회 300여명 참석 사업 정교화 방안 모색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가 24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는 가브리엘 키한드리야, 헨릭 하보 공동 의장을 포함한 이사 24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GCF 이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외부 감사, 연례 보고, 예산·회계 가이드라인 등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GCF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집행할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을 인증해 사업 승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초기 재원 102억달러(약 11조원)에 대한 협정 체결 관련 사항도 논의된다.

GCF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5대 5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GCF는 오는 10월 열리는 11차 이사회까지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 승인을 목표로 사업 선정, 평가 방법, 자금 배분, 위험 관리 방안 등 GCF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정교화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중부일보

2015년 03월 25일 수요일 103면 종합

GCF 이사회... 내일까지 31개 아젠다 처리

초기 재원 11조원 협정체결 논의 기후변화·온실가스에 5대 5 배분

녹색기후기금(GCF) 제9차 이사회가 24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가브리엘 키한드리야, 헨릭 하보 공동 의장을 포함한 이사 24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모델 정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외부 감사, 연례 보고, 예산·회계 가이드라인 등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사회는 공동의장 개회사, 아젠다 채택, 8차 이사회 이후 공동의장과 사무국의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이번 이사회에서는 총 31개의 아젠다를 다룬다.

GCF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집행할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을 인증해 본격적으로 사업 승인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초기 재원 102억달러(약 11조원)에 대한 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다룬다.

GCF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대 5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오는 10월 열릴 11차 이사회까지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 승인을 목표로 사업 선정, 평가 방법, 자금 배분, 위험 관리 방안 등 GCF 운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라다숨기자

붙임 2

관련사진



GCF 이사회장



GCF 이사회장 회의 모습



인천광역시장 주재 환영오찬



오찬행사장 전경



GCF 사무총장주재 만찬



오피서룸 청취모습



기획재정부 차관주재 환영만찬



송도컨벤시아 소회의실(CSO지원)